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중국의 중서부 발전전략과 대아세안 산업이전에 대한 대응

KIEP 북경사무소(kucho@kiep.go.kr, Tel: 86-10-8497-2870)



차 례

1. 개요
2. 중국 산업의 고도화와 구조적 변화
3. 중국의 중서부지역 발전 계획
4. 아세안으로의 산업이전 추이와 중국 내 반응
5. 평가 및 전망

주요 내용

- 중국의 산업발전을 주도하는 동부 연해지역의 생산비용 상승에 따라 저부가가치 산업의 중서부지역 및 아세안(동남아시아) 지역으로의 이전이 가속화되고 있음.
 - 최근 중국은 국제 교역조건 악화로 인하여 아세안 지역으로의 산업이전이 가속화 되는 추세임.
 - 이에 대응하여 중국은 국내 공급망 안정과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서부지역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음.
- 중국은 2001년 WTO 가입 이후 급격한 산업고도화를 이루며 고부가가치 산업 위주로의 구조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 중국은 제조업 분야에서 아시아 공급망의 중심이자, 세계 3대 공급망 중심국가로 떠오르는 등 세계적인 공업국가로 성장
 - 경제성장과 함께 생산비용 상승이 동반되면서 화학, 전자 등 자본집약적인 산업의 비중이 커지고, 노동집약적인 산업의 비중이 낮아지는 등 산업의 구조적 변화가 나타나는 추세임.
 - 이에 따라 노동집약적인 산업은 동부 연해지역에서 중서부 내륙지역이나 아세안으로 산업을 이전하고 있음.
- 중국 정부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중서부지역으로 이전되도록 장려하여 아세안으로의 산업 유출을 막고자 함.
 - 중국 정부는 2000년대 초반부터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중서부지역 개발에 노력해 왔으며, 최근 일대일로나 쌍순환 등 국가전략의 추진으로 중서부지역 발전의 필요성이 커짐.
 - 최근 중서부지역으로의 산업이전을 장려하기 위한 인프라 건설·공공서비스 지원 등의 포괄적인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음.
- 최근 국제정세 변화로 아세안으로의 산업 유출이 가속화되면서 이에 대한 중국 정부의 대응책이 주목을 받고 있음.
 - 다국적기업의 아세안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신발, 의류 등 저부가가치 산업에 이어 일부 전자산업까지 이전하면서 아세안 지역의 산업경쟁력이 강화되는 추세임.
 - 중국은 내륙지역의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아세안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공급망 안정을 지키는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함.

1. 개요

■ 중국의 산업발전을 주도하는 동부 연해지역¹⁾의 생산비용 상승에 따라 저부가가치 산업의 중서부 내륙지역 및 아세안²⁾으로의 이전이 가속화되고 있음.

- 중국의 국제교역조건 및 생산환경 악화에 따라 아세안으로의 산업이전이 가속화되는 추세임.
 - 중국 내 생산비용 상승과 함께 미중 무역분쟁으로 대미 수출의 고율 관세, 국제정치적 불확실성 등 부담이 가중되면서 주요 글로벌기업들의 아세안 진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중국은 쌍순환, 일대일로 전략의 일환으로 국내 공급망 안정과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서부 지역 개발을 장려하고 있음.
 - 「14차 5개년 계획과 2035년 중장기 목표」는 2000년대 시행된 서부대개발에 비해 전반적인 생활수준 향상에 초점을 맞춘 발전 계획을 포함하고 있음.
 - 2020년 5월 17일 「국무원 신시대 서부대개발을 위한 지도의견」에서는 충칭, 청두, 시안 등 거점도시의 국제화 발전계획과 서부지역 고품질 발전 계획을 포함³⁾
 - 2022년 1월 17일 발표된 「제조업 이전 촉진을 위한 지도의견」은 동부지역 산업을 중서부지역과 동북지역으로 이전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포함되어 있음.⁴⁾

■ 중국의 노동집약적 산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생산비용 상승, 노동인구 증가세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동남아로의 이전을 본격화하기 시작⁵⁾

- 중국에 생산기지를 가진 주요 기업들이 아세안으로 생산거점을 확장 또는 이전하는 사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음(표 1 참조).
 - 다국적기업뿐만 아니라 중국기업도 아세안에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특히 2018년 미중 무역분쟁과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체결로 중국을 벗어나 동남아 혹은 멕시코로 생산기지를 이전할 유인이 크게 증가함.
- 중국의 인건비 등 생산비용 상승이라는 경제적 요인과 더불어 최근 국제정치적인 요인들도 동남아로의 생산기지 이전을 가속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1) 중국 본토 31개 성, 직할시, 자치구는 통상적으로 동부, 중부, 서부로 구분되며 본문에서는 아래의 지역들을 포함함.

- 동부(11개): 베이징시, 상하이시, 톈진시, 허베이성, 산둥성, 장쑤성, 저장성, 푸젠성, 광둥성, 하이난성, 랴오닝성
 - 중부(8개): 산시성, 안휘성, 장시성, 후베이성, 후난성, 허난성, 헤이룽장성, 지린성
 - 서부(12개): 충칭시, 네이멍구자치구, 신장위구르자치구, 시장자치구, 닝샤자치구, 간쑤성, 칭하이성, 산시성, 구이저우성, 광시자치구, 윈난성, 쓰촨성

2)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아세안 국가들은 중국의 대체 생산기지로 평가받는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과 인도 등을 포함하고 있음.

3) 「中共中央 国务院关于新时代推进西部大开发形成新格局的指导意见」(2020. 5. 17), 『新华社』.

4) 「关于促进制造业有序转移的指导意见」(2022. 1. 17), 『工业和信息化部』.

5) 「中国制造必修课」(2022. 6. 27), 『财经』.

- 중국은 최저임금 인상, 2013년 이후 생산가능인구 수 감소 등으로 인해 가파른 임금 상승을 겪고 있어 노동집약적 산업에서의 비교우위가 약해지고 있음.
- 2016년 미얀마, 캄보디아가 미국으로부터 일반특혜관세제도(GSP) 혜택을 얻는 등 일부 아세안 국가의 국제교역환경 개선이 수출경쟁력 강화로 이어짐.
- 미중 갈등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중국을 떠나 아세안 등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할 유인이 커지고 있음.
- 코로나 19 충격으로 특정 국가에 편중된 공급망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명확해지면서 공급망 다변화를 추구하는 추세도 동남아 산업이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표 1. 중국에서 아세안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한 주요 사례

연 도	대상 국가	주요 사례
2013	베트남	- 애플, 삼성, Goertek(중국 전자기기 업체) 등 베트남 생산기지 건설에 착수
2015	인도	- 샤오미, VIVO, OPPO 등 중국 스마트폰 업체의 인도 진출, 폭스콘의 인도 생산기지 건설
2019	인도	- 중국의 스마트폰 부품제조 업체 공장 건설
	미얀마	- 중국 섬유제조업체의 미얀마 진출 최고조 - 미얀마 500여 개 섬유업체 중 70%를 중국기업이 차지
2020	인도/베트남	- 삼성전자 스마트폰 중국공장 폐쇄, 인도 및 베트남으로 이전
2020	베트남	- 애플의 200여 개 협력업체 중 베트남에 23개(2018년 대비 6개 업체 증가)로 그 중 7개는 중국기업
2020	인도	- 중국인도 관계악화, 중국의 대인도 투자 전년대비 60% 감소
2021	캄보디아	- 캄보디아 섬유업체 2018년 190여 개에서 2019-2021년간 115개 업체 신규 진입
2022	인도	- 애플, 신형 스마트폰 아이폰13의 인도 생산 계획을 발표

자료: 财经(2022. 6. 27).

■ 중국 정부는 아세안으로의 산업이전을 막기 위해 중서부지역 개발의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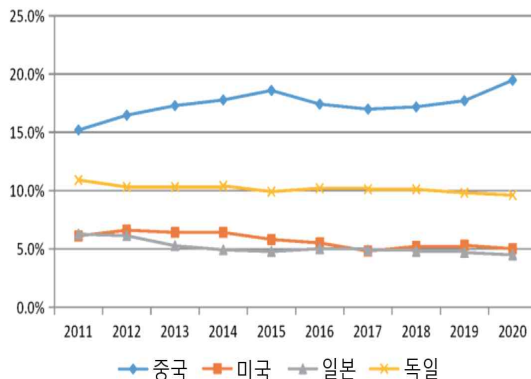
- 중국은 쌍순환 전략의 일환으로 내수시장 활성화와 독자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아세안 지역으로의 산업 유출을 막는 대신에 중국 중서부지역으로의 산업이전을 장려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음.
- 중국의 생산환경 악화에 더불어 미중 갈등 등 국제정치적 요인까지 불거져 향후 아세안으로의 산업이전이 어느 수준까지 도달할지 주목되는 상황

2. 중국 산업의 고도화와 구조적 변화

■ 중국은 2001년 WTO 가입 이후 급격한 산업고도화를 이루며 세계 수준의 공업국가로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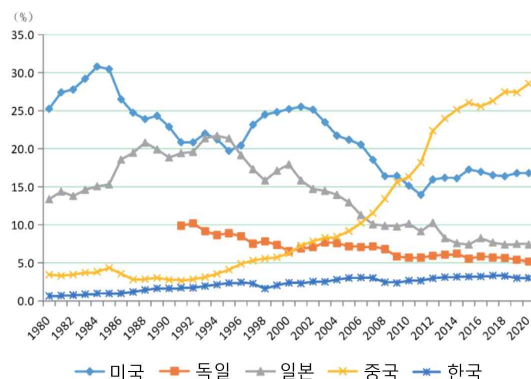
- 중국은 2000~2017년 사이에 일본을 제치고 아시아 산업공급망의 중심국가로 올랐으며 미국(북미), 독일(유럽)과 함께 세계 3대 공급망 중심국가로 성장함.⁶⁾
- 중국은 2010년 이후 전 세계 제조업 수출시장 및 부가가치 점유율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음.
 - 중국의 제조업 수출시장 점유율은 2010년 이후 15%를 넘어선 후 2020년 20%를 달성하였으며, 이는 2위 국가인 미국의 두 배 수준에 해당함(그림 1 참조).
 - 부가가치 기준으로 2012년 미국을 넘어서며 2020년 30% 수준을 달성함(그림 2 참조).
 - 중국은 UN이 지정한 41개 산업대분류에 속한 제품을 모두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로, 세계 최대의 공업대국으로 성장⁷⁾

그림 1. 주요국의 전 세계 제조업 수출시장 점유율 추이(2011~2020년)



자료: 商务部国际贸易经济合作研究院(2022. 6).

그림 2. 주요국의 전 세계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 추이(2005~2021년)



자료: 商务部国际贸易经济合作研究院(2022. 6).

■ 중국의 제조업이 발전함에 따라 산업고도화 및 생산비용 상승이 동반되며 최근 산업망의 구조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⁸⁾

- 주요 산업의 전 세계 시장점유율은 대체로 성장하였지만 최근 산업별로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

6) 「Global Value Chain Development Report 2019」(2022. 6), 『World Trade Organization』.

7) 「跨国公司在中國：全球供应链重塑中的再选择」(2022. 6), 『商务部国际贸易经济合作研究院』.

8) 「『国君宏观』三个视角观察产业链外迁——国泰君安宏观周报」(2022. 5. 29), 『国君证券』.

음(표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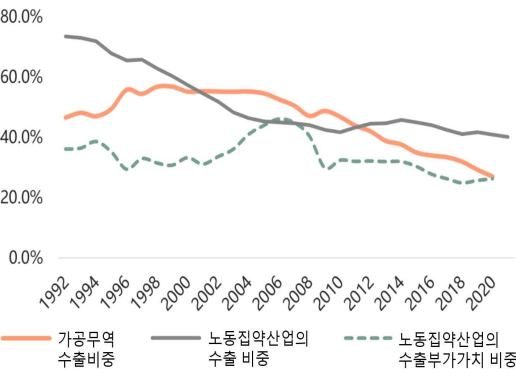
- 화학공업, 기계설비, 운송설비 등 주력산업은 2020년 세계 점유율 신기록을 달성하며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의복, 가죽, 가구 등 노동집약적 산업은 2014~2015년에 전 세계 수출 점유율 최고점을 달성한 후 하락 추세를 나타냄.
- 노동집약적 산업에서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하락은 중국의 비교우위 약화와 동남아 등 해외로의 산업이전을 보여주는 간접적인 증거로 해석

표 2. 중국 주요 산업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추이

산 업	2000년	2010년	2020년	비 고
화학제품	2%	2%	8%	
기계 및 운송장비	3%	15%	20%	
의류	17%	36%	31%	2014년 38%로 최고치 기록
신발	21%	38%	31%	2015년 42%로 최고치 기록

자료: 国君证券(2022. 5. 29).

그림 3. 중국 가공무역 및 노동집약산업의 수출 비중 추이(1992~2021년)



자료: 清华服务经济与数字治理研究院(2022. 9. 5).

표 3. 중국의 품목별 수출 비중의 변화 추이 (2000~2020년)

산업	2000년	2010년	2020년
화학제품	5%	6%	7%
기계 및 운송장비	33%	49%	49%
의류	14%	8%	5%
신발	4%	2%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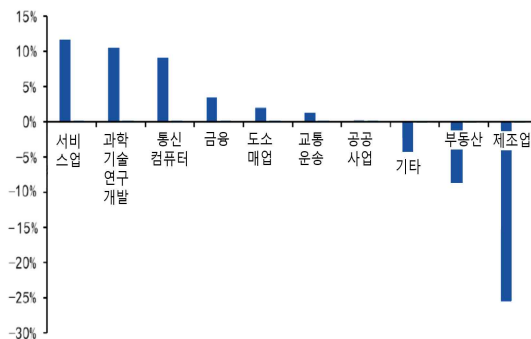
자료: 国君证券(2022. 5. 29).

- 중국의 수출품목별 비중에서도 노동집약적 산업, 저부가가치 산업의 비중이 낮아지고 있으며, 해당 산업의 중국경제에 대한 기여도 역시 낮아지고 있음.
- 가공무역⁹⁾의 수출 비중은 2000년대 초반 50% 이상에서 2021년 30% 수준으로 하락함¹⁰⁾

9) 수입된 중간재를 가공 및 조립한 후 수출하는 무역형태로 주로 노동집약적인 생산단계에 집중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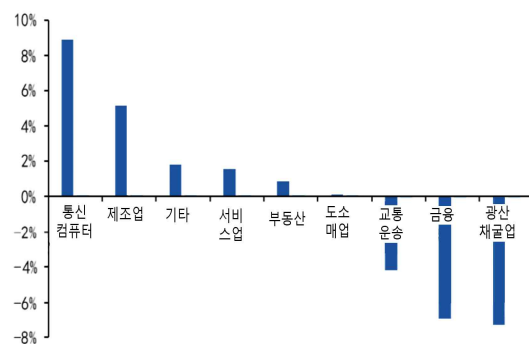
- 노동집약적 산업의 수출 비중도 1992년 73%에서 2021년 40%까지 꾸준히 하락함.
- 화학제품, 기계 및 운송장비 등 주력산업은 2000년 이후 꾸준히 수출 품목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냄(표 3 참조).
- 대표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인 의류, 신발의 수출 비중은 2000년 각각 14%, 4%에서 2020년 5%, 1%로 하락함.
- 중국 내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은 점차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바뀌어 가는 반면, 중국의 해외투자는 제조업 분야가 증가하고 있음.
- 2010년에 비해 2020년 중국 내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은 서비스업, 기술연구, 통신·컴퓨터 분야에서 10% 이상 큰 폭으로 증가했음(그림 4 참조).
- 같은 기간 제조업에 대한 투자는 25% 이상 하락하면서 중국의 단순 제조업 분야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하락한 것을 알 수 있음.
- 반면 2020년 중국의 통신·컴퓨터, 제조업 분야 해외투자는 2010년에 비해 5%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그림 5 참조).
- 이는 중국기업들이 자국의 생산환경 악화에 따라 아세안 등에 생산기지를 구축하면서 해외투자가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그림 4. 중국의 산업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의 변화율(2010년 대비 2020년 증가율)



자료: 国君证券(2022. 5. 29).

그림 5. 중국의 산업별 해외직접투자의 변화율 (2010년 대비 2020년 증가율)



자료: 国君证券(2022. 5. 29).

3. 중국의 중서부지역 발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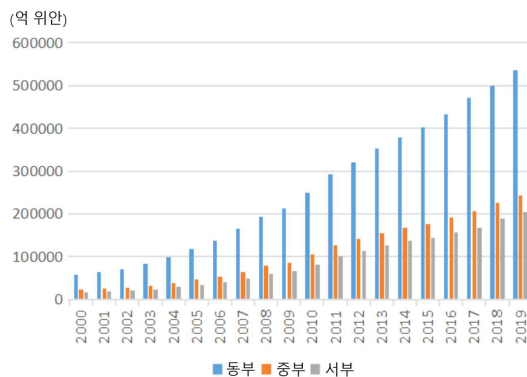
■ 경제가 상대적으로 발달한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중국의 산업고도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최근 생산비용이

10) 「江小涓, 高宇宁, 孟丽君老师出席“一带一路”服务贸易合作论坛, 我院与合作者共同推出《2022中国服务贸易年度研究报告》」(2022. 9. 5), 『清华服务经济与数字治理研究院』.

빠르게 상승하면서 저부가가치 산업에서의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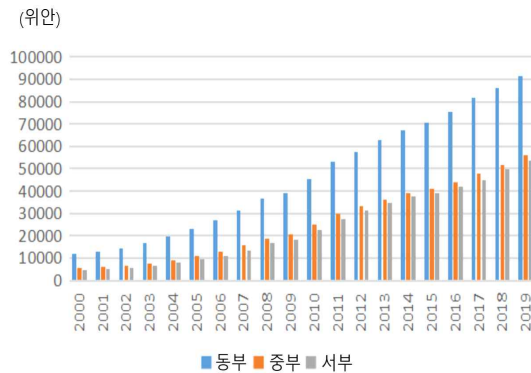
- 중국의 산업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해외접근성이 높은 동부 해안을 중심으로 발전해왔음.
 - 2020년 기준 동부지역은 전체 GDP의 51%, 공업 부가가치 생산의 53.7%를 차지¹¹⁾
- 동부지역 내 노동력 부족과 산업고도화로 임금수준이 높아지면서 노동집약적인 저부가가치 산업의 아세안 혹은 중서부 내륙으로의 이전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나 중국 정부는 산업 유출 방지를 위해 중서부지역 개발에 더욱 힘쓰고 있는 상황임.¹²⁾

그림 6. 중국의 지역별 GDP 추이
(2000~2019년)



자료: Lanzhou University (2021. 1. 25).

그림 7. 중국의 지역별 1인당 GDP 추이
(2000~2019년)



자료: Lanzhou University (2021. 1. 25).

■ 중국의 서부지역 개발은 지역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1999년부터 ‘서부대개발’ 전략으로 본격화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동부지역 경제성장률에 비견할 만한 빠른 성장을 기록해왔음.¹³⁾

- 중국 정부는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서부 내륙지역 개발 노력을 20여 년간 꾸준히 지속해왔음.
 - 1999년 제15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서부대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10차 5개년 계획(2001~2005년)부터 구체적인 발전 전략을 포함
- ‘서부대개발’은 초기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서 시작해서 점차 포괄적인 개발사업으로 확장
 - 10차 5개년 계획은 고속도로, 철도건설, 인공하천 건설 등 서부지역 인프라 구축과 지하자원 개발에 집중하여 티베트철도 건설(칭장철도), 신장위구르자치구 천연가스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작
 - 11차 5개년 계획(2006~2010년)에서는 더 나아가 산업발전, 공공서비스 개선, 중점지역 개발 등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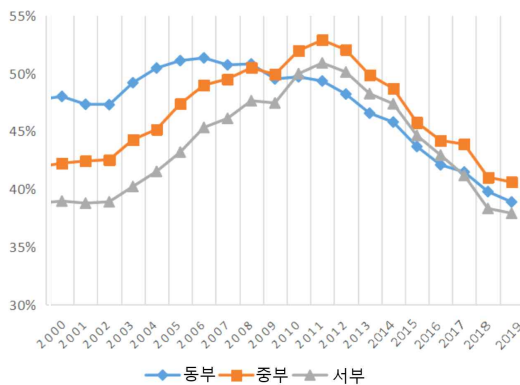
11) 「区域工业十年考：沿海四省挑大梁，中西部被低估了?」(2022. 8. 15), 『每日经济新闻』.

12) 「沿海产业大转移，是去中西部，还是东南亚?」(2019. 12. 19), 『观察家网』.

13) 「百个瞬间说百年 2000，西部大开发战略全面启动实施」(2021. 12. 13), 『新华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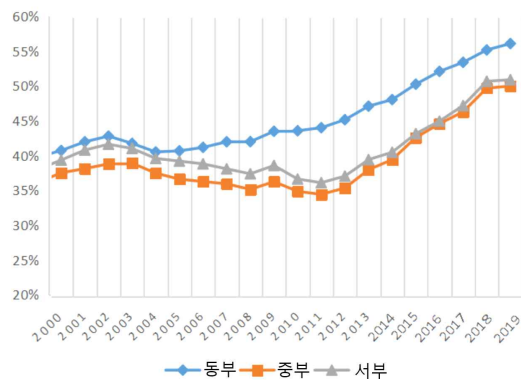
- 이러한 내륙지역 발전계획에 힘입어 중서부지역도 동부지역과 함께 꾸준한 성장을 기록함.¹⁴⁾
 - 개혁개방의 직접적 수혜를 입은 동부지역은 중서부지역에 비해 높은 GDP를 유지하고 있음(그림 6 참조).
 - 하지만 동부지역과 중서부 내륙지역 간 GDP 격차는 점차 줄어들면서 2005년 동부지역은 서부지역 GDP의 3.48배였지만, 2019년에는 2.5배로 축소
 - 중서부지역 내 격차도 점차 줄어들면서 서부지역의 GDP 대비 중부지역 GDP는 2000년 1.39배에서 2019년 1.19배를 기록
 - 1인당 GDP에서도 동부지역과 중서부지역의 차이는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동부지역의 1인당 GDP는 2003년 서부지역의 2.5배에서 2019년 1.7배로 축소(그림 7 참조)
- 중국이 경제성장을 지속함에 따라 동부와 중부, 서부의 순서대로 2차산업의 비중 축소, 3차산업 비중의 확대 현상이 나타남(그림 8 및 그림 9 참조).
 - 동부지역은 2006년을 기점으로 2차산업 비중 하락과 동시에 3차산업 비중 상승이 나타남.
 - 중서부지역은 그보다 늦은 2011년을 기점으로 2차산업 비중 하락과 3차산업 비중 상승이 나타남.
 - 2018년에는 중서부지역도 3차산업 비중이 50%에 달하면서 2차산업 기반의 제조업이 주류산업에서 벗어나게 됨.

그림 8. 중국의 지역별 2차산업 비중의 추이
(2000~2019년)



자료: Lanzhou University of Finance and Economics (2021. 1. 25).

그림 9. 중국의 지역별 3차산업 비중의 추이
(2000~2019년)



자료: Lanzhou University of Finance and Economics (2021. 1. 25).

■ 최근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쌍순환, 일대일로 등의 국가전략과 맞물려 서부대개발 2.0과 같은 키워드가 회자될 만큼 중서부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음.

- 2020년 5월 17일 「국무원의 신시대 서부대개발을 위한 지도의견」에서는 일대일로와 연계한 중

14) 「我国东中西部经济财政发展差异对比」(2021. 1. 25) 『兰州财经大学』

- 칭, 청두, 시안 등 거점 도시의 국제화 발전계획을 포함¹⁵⁾
- 일대일로를 통해 중앙아시아, 아세안 국가들과의 연결성이 높아지면서 중서부지역 도시들의 개방화에 대한 전략적 가치도 높아지고 있음.
 - 3+5 개방형 도시발전 계획으로 3개의 국제도시(충칭, 청두, 시안), 5개의 거점도시(쿤밍, 난닝, 우루무치, 란저우, 후허하오터)를 선정하여 중점 지원하고자 함.
 - 충칭, 청두, 시안은 중서부지역의 중점도시로서 이미 2018~2019년부터 도시별로 국제도시 건설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하였고,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음.
 - 2020년 12월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은 노동집약적 산업에 대해 동부에서 중서부로의 이전을 지원할 것을 지시함.¹⁶⁾
 - 국가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기 위해 동·서부지역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서부지역으로의 산업이전을 위한 기반시설 및 공공서비스 제공을 확대해서 서부지역의 안정적인 산업발전을 장려
 - 「14차 5개년 계획 및 2035년 중장기목표」는 전국 균형발전과 내륙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대일로와 연계한 서부대개발을 추진
 - 일대일로 사업의 일환으로 중서부지역과 주변국가를 연결하는 인프라시설을 확충하고 녹색산업, 빈곤퇴치, 교육, 의료 등 전반적인 생활수준 향상을 목표로 함.
 - 2022년 1월 17일 발표된 「제조업 이전 촉진을 위한 지도의견」에서는 동부지역 산업의 중서부, 동북지역 이전을 지원하는 정책이 포함¹⁷⁾
 - 2025년까지 중서부지역과 동북지역의 산업이전 수용을 위한 환경 조성, 지역별 비교우위에 맞는 산업육성을 목표로 함.
 - 노동집약적 산업은 중서부지역 도시 중 노동력이 풍부하고 교통인프라가 정비된 지역으로 이전하고, 기술집약적 산업은 산업기반이 조성된 중서부의 중심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중서부지역 산업조성에 환경, 안보, 에너지 효율을 모두 고려하는 고품질 발전전략을 채택하여 해당 지역을 단순한 동부지역의 대체지가 아닌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한 지역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 충칭을 포함한 쓰촨성 일대는 청위(成渝)경제권으로 불리며 중국 4대 도시권역으로 주목받고 있음.

- 2021년 10월 국무원은 「청위경제권 건설 계획」을 발표하면서 서부지역의 대표적인 경제권으로 육성할 계획을 밝힘.¹⁸⁾
- 해당 지역은 일대일로와 창장 경제벨트가 교차하는 서부지역 교통의 요지로서 전략적 의미가 있음.
- 창장(長江)삼각주, 웨강아오(粵港澳, 광둥·홍콩·마카오),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 등 3대 동부 경제권에 이어 서부내륙의 대표적인 경제권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

15) 「西部大开发新格局① | 优化中心城市和城市群治理 促进西部大开发」(2020. 6. 21), 『中国发展观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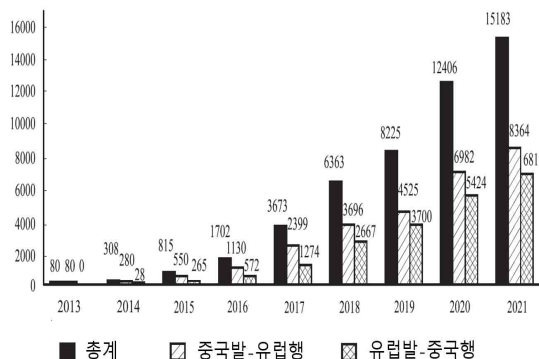
16) 「习近平主持中央政治局常委会会议并发表重要讲话」(2020. 12. 3), 『新华社』.

17) 「关于促进制造业有序转移的指导意见」(2022. 1. 17), 『工业和信息化部』.

18) 「中共中央 国务院印发《成渝地区双城经济圈建设规划纲要》」(2021. 10. 21), 『新华社』.

- 충칭·유럽 간 국제 화물철도는 내륙도시인 충칭을 유럽까지 이어주는 물류허브로 부상하게 만든 주요 인프라 시설로 청위경제권 성장의 주요 원동력이 되고 있음.¹⁹⁾
 - 2013년 연간 80회 운행에서 2021년 15,000여 회 운행, 146만 톤의 화물 수송으로 양적 성장을 이루고 있음(그림 10 참조).
 - 초기 중국발 유럽행에 비해 유럽발 중국행 화물이 적은 것이 비효율의 주원인으로 지목되었지만 최근 유럽발이 중국발의 82% 수준까지 향상되어 운송 효율성이 높아지고 있음.
- 충칭은 청위경제권의 핵심 거점도시로 2020년 상반기 처음으로 1선 도시 중 하나인 광저우의 GDP를 추월한 후, 광저우와 중국 도시별 GDP 4위를 두고 경쟁하고 있음.²⁰⁾
 - 충칭은 인구 3,000만 이상의 4대 직할시 중 하나로, 내륙도시임에도 교통인프라와 첨단 산업시설을 갖춰 최근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충칭의 내륙항구인 귀위안항은 중국 인구의 40% 이상을 포괄하는 11개 성(省)·시(市)를 지나가는 창장(長江)에 위치하여 청위경제권의 물류 중심지 역할을 수행²¹⁾
 - 충칭은 2019년까지 6년 연속 세계 최대 노트북 생산기지의 역할을 수행했으며, 각종 전자산업과 자동차 산업이 발달²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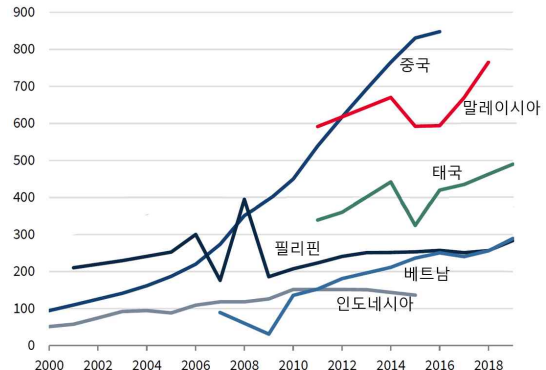
그림 10. 충칭·유럽 간 국제 화물철도 운행 회수 추이(2013~2021년)



단위: 열차 운행 횟수

자료: 中欧班列发展报告(2021).

그림 11. 중국과 아세안 주요국의 월평균 임금 비교(2000~2018년)



단위: 달러

자료: Economics Report of President(2021. 1).

4. 아세안으로의 산업이전 추이와 중국 내 반응

19) 「中欧班列发展报告(2021)」(2022. 8. 20), 「中国国家铁路集团有限公司」.

20) 「广州GDP2.82万亿, 与重庆第四城之争保持领先」(2022. 1. 25), 「第一财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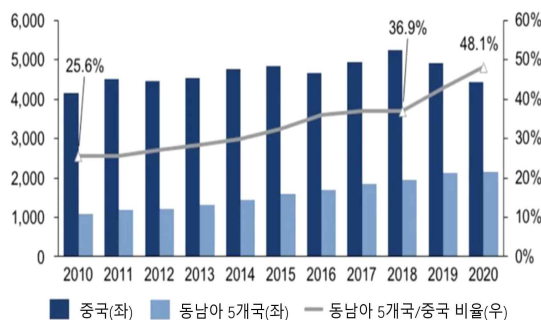
21) 「内陆港成“世界的中转站”——重庆果园港蝶变记」(2022. 6. 20), 「人民网」.

22) 「重庆产业链供应链调查① | 重庆笔电产量全球“七连冠”背后的秘密」(2021. 3. 22), 「重庆日报」.

■ 중국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임금상승 등 생산비용의 증가, 최근 미중 간 갈등 악화는 저부가가치 산업의 아세안으로의 산업이전을 가속화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

- 중국의 내륙지역도 연해지역과 함께 임금 상승을 겪으면서 노동집약적인 저부가가치 산업을 위주로 아세안에 대체 생산기지를 건설하고 있음.²³⁾
- 2010년대 이후 중국의 임금수준은 빠르게 상승하여 말레이시아 등 주요 아세안 국가들을 상회하기 시작함 (그림 11 참조)
- 중국의 노동비용에서의 비교우위 하락은 노동집약적·저부가가치 산업의 아세안 이전을 가속화
- 노동집약도가 높은 의류, 가구, 전자, 통신 산업을 기준으로, 세계 주요시장(한국, EU, 미국, 일본)에서 아세안 5개국(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의 점유율 합은 꾸준히 상승하여 중국의 점유율 대비 2010년 25.6%에서 2020년 48.1%를 기록(그림 12 참조)
- 이와 같은 아세안의 세계시장 점유율 상승은 기존 중국에 생산기지를 가진 글로벌 기업들이 동남아로 생산기지를 확장 및 이전하면서 비롯된 결과로 해석됨.
- 2018년 이후 격화된 미중 간 갈등으로 상호 관세부과 등 무역장벽이 높아지면서 이를 피하기 위하여 아세안 생산기지 건설을 선택하는 기업이 등장하고 있음.²⁴⁾
- <그림 12>에서 보는 것처럼 미중 무역분쟁이 본격화된 2018년부터 아세안 비중이 더 빠르게 상승하는 것은 기존 중국의 생산비용 증가라는 경제적 요소와 함께 국제정치적 요소도 아세안으로의 산업이전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그림 12. 중국과 아세안의 세계 주요 시장
주요품목 점유율 추이 비교(2010~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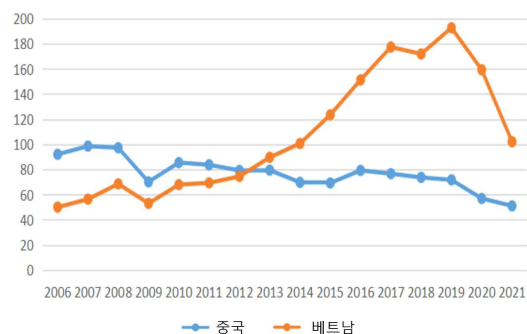


단위: 억 달러(좌), %(우)

주: 세계 주요시장은 한국, EU, 미국, 일본을 의미하여 각 시장의 수입규모의 총합을 기준으로 함. 동남아 5개국은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를 의미함. 수입품목은 의류, 가구, 전자, 통신산업을 포함함.

자료: 云启资本(2022. 7. 4).

그림 13. 중국과 베트남 신발생산량 추이 비교
(2006~2021년)



자료: 财经(2022. 8.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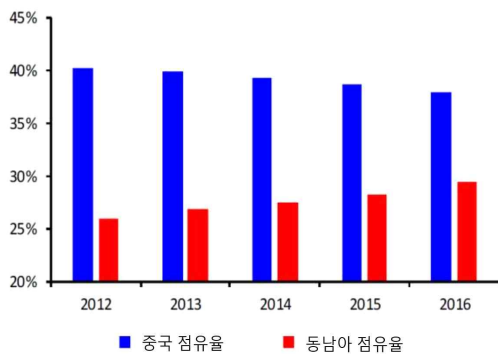
23) 「余森杰：中国的劳动力密集型产业转移到东南亚不是长久之计，应往非洲转移」(2022. 2. 23), 『北大国发院』.

24) 「中国制造必修课」(2022. 6. 27), 『财经杂志』.

■ 대표적인 저부가가치 산업인 신발 및 의류 산업은 동남아로의 산업이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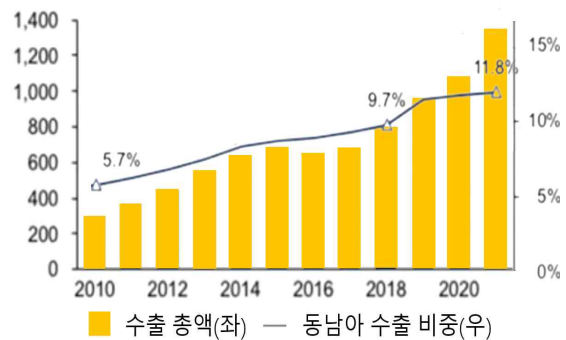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주요 방직기업들이 동남아로 이전하는 사례가 활발하게 나타남²⁵⁾
- 신발제조는 베트남의 생산량이 2013년부터 중국의 생산량을 추월하기 시작함(그림 13 참조).
- 의류산업에서도 2012년 이후 중국의 미국시장 점유율은 점차 줄어드는 반면, 아세안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2016년 30% 수준에 도달 (그림 14 참조)

그림 14. 중국과 동남아의 미국 의류시장 내 점유율 추이 비교(2012~2016년)



자료: 国泰君安证券(2017. 9. 25).

그림 15. 중국의 동남아 5개국 원자재 및 중간재 수출 추이(2010~2020년)



주: 동남아 5국은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 필리핀을 의미.
자료: 云启资本(2022. 7. 4).

■ ‘중국의 중간재 수출 → 아세안 최종재 조립’의 공급망이 형성되면서 아세안이 중국의 주요 무역상대국으로 부상하며 상호 더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2020년 아세안은 미국과 유럽연합을 제치고 중국의 최대 무역상대국으로 부상²⁶⁾
- 2022년 상반기 아세안은 중국 무역의 14.8%를 차지하였으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발효됨(2022.1월)에 따라 교역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
- 노동집약적인 완제품 조립공정이 아세안으로 이전하면서 중국의 대아세안 중간재 수출로 상호 공급망이 형성
- 중국이 산업고도화로 중간재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됨으로써 중국에서 생산한 중간재를 아세안으로 수출하여 아세안에서 완제품을 생산한 후 이를 제3국으로 수출하는 다른 형태의 글로벌 가치사슬이 구축되고 있음.
- 중국의 아세안 주요 5개국에 대한 원자재와 중간재 수출은 2010년 이후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25) 「『国君策略』向东南亚产业转移, 中低端制造业也有“春天”——深挖中国制造系列第五篇」(2017. 9. 25), 『国君证券』.

26) 「中国制造必修课」(2022. 6. 27), 『财经杂志』.

그 비중도 10년간 2배로 증가(그림 15 참조)

- 중국 정부는 일대일로 사업의 일환으로 중국 본토와 동남아를 잇는 인프라 건설을 통해 경제적 통합을 도모하고 있음.²⁷⁾
- 2021년 개통한 중국-라오스 간 철도는 개통 후 7개월만에 411만명이 이용했고, 503만톤의 화물을 운송했음.
- 중국-라오스 간 철도는 2028년 태국까지 연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국과의 교역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 중국에서는 아세안으로의 산업이전에 대한 경제적 효과분석과 대응방안을 고려하는 연구가 논의되고 있음.

- 중국 사회과학원 쉬치위안 연구원은 저부가가치 산업에 이어 자본집약적 산업까지 아세안으로 유출되는 상황을 경계함.²⁸⁾
- 중국 제조업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은 고부가가치 제조업의 해외이전이 가져올 위험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진단하며, 중국의 제조업 발전 수준을 단계별로 나눠서 살펴보고, 단계별 비교우위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평가
- 산업 유출의 경제적 효과 분석은 1) 중국기업이 해외진출을 통해 이전보다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2) 해외이전으로 산업공동화와 실업 등 다른 사회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3) 산업유출 대상 국가가 중국의 경쟁자가 되지는 않을지, 4) 투자 유출이 시스템적 위기로 전이되지 않을지, 5) 산업 유출로 국가안전이 위협되지 않는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함.

■ 베트남의 고속 성장 등으로 아세안 국가들이 주목받고 있지만 실제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에서 비우호적인 측면도 존재하여 아세안 진출에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음.²⁹⁾

- 아세안 주요 5개국(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합쳐도 중국 인구의 절반 이하, 중국 GDP의 1/6, 중국 무역규모의 40%에 불과해 중국을 대체할 경제규모를 갖추지 못함.
-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주요 아세안 국가의 평균연령은 30세 이하로 중국보다 낮고, 출생률도 높은 수준으로 젊은 노동력 공급이 풍부하지만, 베트남은 임금이 연평균 10%씩 상승하는 등 가파른 임금 상승을 겪고 있음.
- 아세안 국가들의 노동력 보호 정책으로 인해, 본국 파견인원이 전체 고용인원의 3%를 넘지 못해서 진출한 기업들이 효율적인 현지직원 관리에 어려움을 겪음
- 베트남의 경우 토지가격 상승으로 중국 내륙과 큰 차이가 없고, 열대기후에 따른 폭우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건설비용이 더 많이 필요

27) 「中老泰铁路实现互联互通」(2022. 7. 1), 『新华网』.

28) 「全球产业链重塑 中国的选择」(2022. 4), 『中国人民大学出版社』.

29) 「中国VS东南亚, TO B产业链到底有什么不同?」(2022. 7. 4), 『云后资本』.

5. 평가 및 전망

■ 중국은 아세안으로의 산업이전 유출을 우려하고 있어 노동집약적 산업에 아직 충분한 경쟁력이 있는 중국 중서부 지역의 기업 투자환경 개선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³⁰⁾

- 중국 중서부지역은 동부지역 임금의 1/3~1/4 수준으로, 과거에는 인력을 동부지역으로 보내는 역할을 했다면 앞으로는 산업을 끌어들이어 스스로 발전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함.
- 중국 중서부지역은 내륙에 위치하고 있어 주로 해안가에 있는 아세안보다 지리적 여건이 불리하므로 상응하는 인프라투자가 요구됨.
-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세제혜택도 필요하며, 중서부지역의 이윤 대비 세금을 아세안 수준 (평균 34%)으로 조정하여 동부지역(북경 55%, 상하이 63%)이나 아세안보다 우수한 경쟁력을 갖춰야 함.
- 중서부지역의 행정편의도 개선해야 하며, 국제 상위수준에 도달한 동부지역의 기업설립 소요 기간 (아시아 평균 26일; 북경 8일, 상하이 9일)을 본받아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함.
- 아세안의 노동 인력을 유치해서 중서부지역의 노동집약적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방안도 가능
- 아세안과 가까운 광시, 윈난 지역은 아세안의 노동력을 받아들여서 노동집약적 산업에서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음.

■ 다른 한편으로는 저부가가치 산업이 아세안으로 이전하는 추세를 받아들이고, 중국의 취약점 보완과 비교우위 강화에 힘쓰는 것이 공급망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음.³¹⁾

- 중국 중서부지역은 자본집약적인 산업, 아세안은 노동집약적인 산업을 중심으로 발전하여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것도 가능
- 노동집약적 산업은 중국 중서부지역도 노동비용 상의 비교우위가 크지 않으며, 아세안 혹은 인프라가 발달된 아프리카로 이전하는 것도 가능함.³²⁾
- 하지만 노동비용의 비중이 낮은 자본집약적 산업은 아세안보다 산업공급망이 더욱 발달된 중국 중서부지역으로의 이전이 더 적합할 수 있음.
- 아세안의 발전을 위협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중국이 지닌 취약점을 보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

30) 「全球产业链重塑 中国的选择」(2022. 4), 『中国人民大学出版社』.

31) 「中国制造必修课」(2022. 6. 27), 『财经杂志』; 「白明: 中国制造业产业链向东南亚转移的六个问题」(2022. 7. 19), 『长江产业经济研究院』.

32) 「余森杰: 中国的劳动力密集型产业转移到东南亚不是长久之计, 应往非洲转移」(2022. 2. 23), 『北大国发院』.

다는 중국 내 의견도 있음.

- 중국에서 생산한 중간재를 베트남에서 조립 및 가공하는 산업망이 형성되었으며, 베트남에 진출한 중국기업으로 인해 실제 이윤은 중국으로 귀속되는 경우가 많음
- 전 세계 제조업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중국이 28.55%, 베트남은 0.34%에 불과하여 인구, 경제성장률을 고려할 때 베트남이 중국의 제조업 지위를 대체하기는 힘들 것으로 평가
- 다만 미국과의 무역 갈등 지속은 중국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수출대상국가의 다변화가 필요함.

■ 급변하는 국제관계 속에서 중국의 자국 산업보호·아세안과의 경제적·정치적 협력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귀추가 주목

- 중국 내 생산비용 증가 등 경제적 요인보다 미중 간 갈등이 국제산업망 형성에 가장 중요한 변수로 떠오른 시점에서 중국이 목표로 하는 중서부지역 개발을 통한 일대일로, 쌍순환 전략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지속할지가 관건
- 서방국가들과의 갈등 속에서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관계 유지 여부도 중국의 공급망 안정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 **KIEP**

[참고자료]

1. 중문 참고자료

- 「【国君策略】向东南亚产业转移，中低端制造业也有“春天”——深挖中国制造系列第五篇」. 2017. 『国君证券』(9. 25).
- 「沿海产业大转移，是去中西部，还是东南亚？」. 2019. 『观察者网』(12. 19).
- 「中共中央 国务院关于新时代推进西部大开发形成新格局的指导意见」. 2020. 『新华社』(5. 17).
- 「中欧班列发展报告 (2021)」. 2021. 『中国国家铁路集团有限公司』.
- 「我国东中西部经济财政发展差异对比」. 2021. 『兰州财经大学』(1. 25).
- 「重庆产业链供应链调查① | 重庆笔电产量全球“七连冠”背后的秘密」. 2021. 『重庆日报』(3. 22).
- 「中共中央 国务院印发《成渝地区双城经济圈建设规划纲要》」. 2021. 『新华社』(10. 21).
- 「百个瞬间说百年 2000，西部大开发战略全面启动实施」. 2021. 『新华网』(12. 13).
- 「关于促进制造业有序转移的指导意见」. 2022. 『工业和信息化部』(1. 17).
- 「广州GDP2.82万亿，与重庆第四城之争保持领先」. 2022. 『第一财经』(1. 25).
- 「余森杰：中国的劳动力密集型产业转移到东南亚不是长久之计，应往非洲转移」. 2022. 『北大国发院』(2. 23).
- 「全球产业链重塑 中国的选择」. 2022. 『中国人民大学出版社』.
- 「【国君宏观】三个视角观察产业链外迁——国泰君安宏观周报」. 2022. 『国君证券』(5. 29).
- 「内陆港成“世界的中转站”——重庆果园港蝶变记」. 2022. 『人民网』(6. 20).
- 「“世界工厂”向东南亚转移，越南能取代中国吗？」. 2022. 『中国报道』(6. 14).
- 「中国制造必修课」. 2022. 『财经』(6. 27).
- 「中国VS东南亚，TO B产业链到底有什么不同？」. 2022. 『云后资本』(7. 4).
- 「中老泰铁路实现互联互通」. 2022. 『新华网』(7. 1).
- 「白明：中国制造业产业链向东南亚转移的六个问题」. 2022. 『长江产业经济研究院』(7. 19).
- 「区域工业十年考：沿海四省挑大梁，中西部被低估了？」. 2022. 『每日经济新闻』(8. 15).
- 「河南PK越南，鞋服制造大迁移」. 2022. 『财经杂志』(8. 21).
- 「江小涓、高宇宁、孟丽君老师出席“一带一路”服务贸易合作论坛，我院与合作者共同推出《2022中国服务贸易年度研究报告》」. 2022. 『清华服务经济与数字治理研究院』(9. 5).
- 「跨国公司在华：全球供应链重塑中的再选择」. 2022. 『商务部国际贸易经济合作研究院』.

2. 영문 참고자료

「Economics Report of President」. 2021. 『US White House』.

「Global Value Chain Development Report 2019」. 2022. 『World Trade Organization』.

자료 정리: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 국제무역학과 박사과정 김동현
(brenze1@naver.com)